

치해 외국인 및 내국인 투숙객을 대상으로 관광 및 각종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KDC정보통신은 루넷에 36억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및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호텔에 기술인력 상주 및 유지보수를 할 계획이다.

KDC는 호텔 정보 인프라 네트워크 센터를 루넷 본사에 설치해, T3(45Mbps) 인터넷 전용선 및 전국 58개의 특급 및 1급 호텔을 E1(2.048Mbps)급의 고속 인터넷 전용회선을 연결하게 된다.

이 회사는 루넷이 추진하는 해외 호텔의 정보 인프라 사업도 공동으로 진행키로 합의했다.

데이콤, 영문 요금조회서비스 제공

데이콤(대표 정규석)은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문 요금조회서비스를 지난 2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한국어로 요금청구내용을 알려주는 서비스는 있었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로 요금청구 내용을 알려주는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서비스는 우선 데이콤 국제전화 002 및 시외전화 082,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향후 천리안, 보라넷 등 데이콤 전 서비스로 확대 실시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7월 개설한 데이콤 외국인고객서비스센터(<http://foreign.teletcity.co.kr>)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고객서비스센터는 이 외에도 영어상담서비스, 지리정보서비스, 영문전화번호부서비스, 부동산정보서비스, 한국어교실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한국통신, IMT-2000 컨소시엄 추진

한국통신(사장 이계철)은 IMT-2000 사업에 대비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 중에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 컨소시엄에 차세대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능력이 있는 기업을 가능한 많이 참여시킬 계획이다.

컨소시엄 구성 대상은 IMT-2000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통신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이며, 재무구조가 견실하고, 전국/지역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거나, 통신 장비 및 단말기 관련 기술보유 기업, 네트워크 구축, 운용기술보유기업,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기업 등이다.

또한 한국통신 및 자회사와의 제휴기업, IMT-2000관련기술, 특허보유기업 및 서비스 개발관련 솔루션 보유기업은 우대할 계획이다.

금번 IMT-2000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의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지분참여에 의한 컨소시엄구성과는 별도로 망 장비의 원활한 조달 및 다양한 콘텐츠의 안정적 제공과 글로벌 로밍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망 중소 벤처기업 및 외국 IMT-2000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도 추진 중에 있다.

한국통신의 컨소시엄구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8월 1일부터 한국통신 IMT2000 홈페이지(<http://www.imt2000.co.kr>)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현대전자·LG전자, 반도체분야 전략적 제휴

현대전자(대표 박종섭)와 LG전자(대표 구자홍)가 25일 디지털미디어 분야의 반도체 공동개발 및 장기공급에 관한 전략적 제휴관계를 체결했다.

이날 계약에 따르면 LG전자는 D램, 시스템LSI, 마이컴, 디지털신호처리기(DSP) 등 자사에 필요한 반도체 물량을 현대전자로부터 조달하며 현대전자는 주문 받은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지난해 이뤄진 반도체 빅딜 이후 두 회사가 이같은 협력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략적 제휴로 LG전자는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으며, 현대전자는 국내에 거대 수요처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체제를 갖추게 됐다.

특히 LG전자는 신제품 개발과 관련, 신규 모델과 신규 프로젝트 추진시 현대전자의 관련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적용키로 해 두 회사의 협력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두 회사는 시스템IC와 메모리 등의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있어 현대전자의 반도체기술과 LG전자의 시스템기술을 바탕으로 공동기획, 개발하는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두루넷, 시스코로부터 1억2000만달러 벤더파이낸싱

세계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기업인 미 시스코시스템스(대표 존 চে임버스)가 두루넷(대표 김종길)에 1억 2000만달러(한화 약 1400억원) 규모의 벤더파이낸싱을 하기로 확정,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두루넷은 지난 23일 세계 1위의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시스코시스템스의 벤더파이낸싱이 안정적이고 돈독한 파트너십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두루넷의 기업 신인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사업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벤더파이낸싱 MOU 교환에 따라 두루넷은 시스코시스템스의 장비를 우선 공급받은 후 장비대금을 시스코의 자회사인 시스코시스템스캐피탈에 장기 저리로 분할 납부하게 된다.

두루넷은 시스코시스템스 벤더파이낸싱 성공에 힘입어 향후 현금 유동성 확보가 용이해지고 해외시장에서의 기업 신인도가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드림라인, X-파인더 서비스

드림라인(대표 김철권)의 국내 최대 동영상 허브사이트 드림엑스(<http://www.dreamx.net>)는 검색엔진 개발업체 로지컴(대표 박성기)과 공동으로 드림엑스내 패밀리 사이트, 개인 홈페이지, 게시물 등을 통합



적으로 검색해 보여주는 X파인더 서비스를 지난 24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X파인더 서비스 도입에 따라 드림엑스 회원들은 동영상, MP3, 이미지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비롯해 개인 홈페이지, 드림엑스와 제휴를 맺은 100여개 콘텐츠업체 사이트를 간단한 검색어 입력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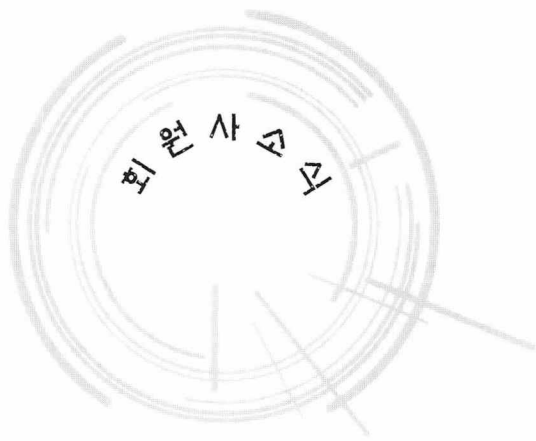
또 드림라인과 로지컴은 이번에 도입한 드림엑스 내부검색 서비스 X파인더에 그치지 않고 오는 9월부터는 자연어처리, 질의응답식 검색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한글, 영문 인터넷 검색 서비스와 웹 디렉터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서치(가칭) 서비스도 오픈할 예정이다.

넥스텔, 에스엘투사와 전략적 제휴

인터넷 솔루션 구축업체 넥스텔(대표 김성현)이 KAIST 교내벤처기업인 에스엘투(대표 전화성)와 음성기반 무선지리정보시스템(GIS) 개발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제휴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넥스텔의 무선GIS 기술과 에스엘투의 음성인식 기술을 접목, GIS기반정보와 각종 지역 콘텐츠를 무선 단말기상에서 음성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시스템 개발을 10월까지 마치고 11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음성인식 기술을 무선단말기에 적용할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음성으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 역시 휴대폰을 통해 음성으로 제공되므로 마치 통화를 하듯 인터넷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미디어솔루션, 아이씨네트 전략제휴

키오스크 전문업체인 미디어솔루션(대표 임용재)과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아이씨네트(대표 신보식)는 지난 12일 초고속 멀티미디어 키오스크 시스템에 대한 전략적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사이버 아파트, 대형 할인 매장 등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을 이용, 회사소개나 사무실 안내기능을 수행하는 무인 단말기로 양사는 이번 제휴로 아파트나 대형할인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삼보컴퓨터, 10월부터 "디바이스 포털" 서비스

삼보컴퓨터는 지난 25일 미국 현지법인 이머신즈를 통해 지난해 말 내놓았던 "하드와이어 포털"보다 발전된 개념인 "디바이스 포털"을 올 10월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새로운 포털서비스는 삼보컴퓨터의 일본 판매법인 소텍을 통해서도 실시될 예정이다.

삼보컴퓨터는 이를 위해 증자를 통해 2천억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머신즈에서 시판중인 "하드와이어 포털"의 대표적 모델인 "e타워"와 "e몬스터"는 키보드에 모두 16개의 핫키를 설치, 증권 쇼핑물 검색엔진 사이트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한 것. 디바이스 포털은 이보다 한 발 나아가 이동중에도 무선인터넷 단말기를 통해 포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삼보컴퓨터는 연말까지 이 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기

위해 관련업계와 활발히 제휴를 추진중이다. 디바이스 포털에 참여한 각 사이트는 증권사가 "stock.korea.com"과 같이 일률적인 도메인을 가질 예정이다. 각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는 각각의 키는 제휴사에 판매된다.

정철 삼보컴퓨터 인터넷부문 사장은 "포스트PC 시대가 본격 개막되면서 디바이스 포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유선망 임대료가 비싸 무선 인터넷의 선호도가 높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텔코리아, 신임 사장에 은진혁 영입이사 임명

인텔코리아는 7월 1일자로 정용환 사장의 후임으로 은진혁 영입이사(32)를 승진,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사장 교체는 인터넷회사로 변신하려는 인텔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인텔코리아는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웹호스팅서비스, 통신 및 무선컴퓨팅 등의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일선에서 물러난 정용환 사장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텔의 신규사업과 대정부 관련 업무,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을 맡게 된다.

포스데이타, 생체인식 정보보안 시장 진출

포스데이타(대표 김광호)가 생체인식 기술 전문업체인 마이텍테크놀로지코리아(대표 김진태)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생체인식 정보보안 시장에 진출했다.

이번 제휴로 두 회사는 포스데이타의 공개키(PKI) 기반 보안인증 솔루션인 '시큐 마스터'와 마이텍이 보유한 지문인식시스템을 결합한 새로운 보안제품을 공동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개발될 제품은 각 사용자의 지문정보를 이용한 신원확인은 물론 공개키 기반의 인증도 가능함으로써 접근제어와 강력한 사용자 인증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스데이타와 마이텍은 오는 연말까지 제품개발을 완료하고 정부기관, 은행, 통신업체, 사이

버증권 등 보안기능이 강조되는 분야와 홈 네트워크, 사이버빌리지, 온라인 e비즈니스 분야 시장을 집중 공략해나갈 계획이다.

LGEDS, e비즈니스 솔루션 테스트 센터 오픈

LGEDS시스템(대표 오해진)이 국내외 협력사의 e비즈니스 솔루션을 고객요구에 맞도록 구축, 직접 검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테스팅센터(STL : Solution Testing Lab)'를 개설했다.

부평 기술연구센터에 마련된 이 테스트센터에는 LGEDS의 e비즈니스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각종 요소 기술과 솔루션 영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우수한 장비 및 제품들이 전시된다.

특히 솔루션 부문에서는 CRM, SCM, KM, ERP, SEM 등 대부분의 e비즈니스 영역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장비인프라 측면에서도 메인프레임, 유닉스, 윈도우 NT, 리눅스 등 다양한 플랫폼 및 핵심기술을 적용한 광범위한 테스트 환경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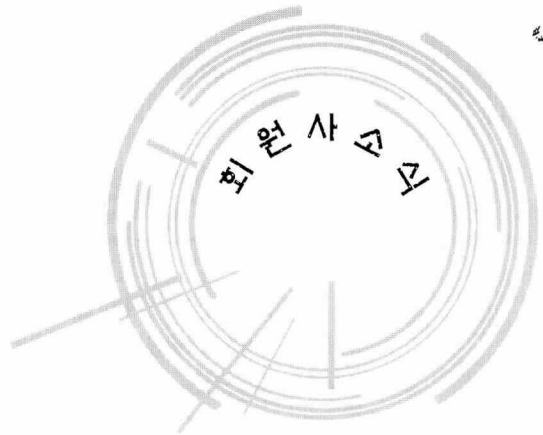
LGEDS는 국내외 유명 솔루션의 확장성 및 연계성을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구축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성 있는 e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경쟁력있는 선진 솔루션을 조기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지앤지네트웍스, 해저 광케이블 건설사업 진출

(주)지앤지네트웍스(사장 서명환)는 아시아 각국을 연결하는 차세대 대용량 해저광케이블을 건설하기 위해 싱가포르 Singtel, 일본 KDD 등 각국의 주관 사업자와 24일, 홍콩에서 계약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C2Cn이라 불리는 이 해저광케이블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추가 예정)을 환형망으로 연결, 총 연장 18,000km, 용량은 7.68Tbps급으로 지금까지 건설된 해저광케이블 중 가장 대용량이 될 전망이다. 또한 향후 대미 태평양 횡단 케이블과도 연결, 아태지역 인터넷 인프라의 주요 시설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앤지네트웍스를 포함, 싱가포르 Singtel, 일본



KDD, 대만 NCIC, 홍콩 GB21 등 총 9개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 추진되는 이 신규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에 지앤지네트웍스는 약 4천만불 규모의 투자로 한국 측의 육양과 인입을 맡게 된다.

2001년 말 완공되는 이 해저케이블은 한국, 일본, 홍콩 등 역내 국가간 및 대미 인터넷 회선의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현재 해저케이블 육양의 한국 통신 독점상황에서 지앤지네트웍스가 육양국을 직접 보유함으로써 국가적인 망 이원화 및 동북아 국제통신의 중심축 역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트콤, 상반기 매출 큰폭 증가

네트워크통합(NI) 업체인 네트콤(대표 정선용)은 지난 상반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22% 증가한 132억 5000만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네트콤은 특히 상반기 영업이익과 경상이익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85%와 183%에 이르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같은 상반기 경영실적 호조에 대해 네트콤은 강원도청, 신한생명, 한전기공 등 국내 금융기관과 관공서 등에서 NI 및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의 매출 호조와 랜카드, 허브 등 자사 매출이 큰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네트콤은 이미 웹스크린폰인 '텔레센터'를 1500대 가량 수주했으며 하반기 중 이 제품으로 200억원 규모의 수출까지 예상하고 있어 올해 총 550억원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